비핵 주도권 잡은 文 '도미노식 핵 폐기' 제안 가능성

종전 선언까지 이끌어낼까 귀추
북한, 비핵화에 횡적으로 접근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매듭짓고 연내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으로 떠나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을 마친 직후인 만큼, 남북 정상이 구체적으로 조율한 비핵화 계획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조된 비핵화, 난관 산더미

우선 백악관은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사흘 전에 받았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 등 북미 간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는 이달 열리는 UN총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역시 이번 회담 결과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연내를 목표로 둔 종전 선언,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세워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꺼번에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올 것"이라고 말한 점을 볼 때, 비록 초청 형식을 취했다 해도 북한이 연내 종전 선언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선언은 미국과 남북이 각각 북핵 폐기와 종전 선언의 순서를 다르게 보고 있어, 한미 정상은 평양 회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접점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미 '톱니바퀴' 文이 굴려야

학계에서는 한국이 이번 회담으로 북핵 문제의 주도적 당사자로 거듭난 만큼, 북핵 폐기와 종전 선언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연내 '서울 종전 선언'으로 이끌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북한은 미국의 완전 핵 폐기 요구에 응하는 대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결정을 남북 간 합의 형식으로 만들어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줬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핵 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상응 조치'가 바로 종전 선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 선언 외에도 평화 협정이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라는 주장이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은 굴욕적인 핵 리스트 제출을 하지 않는 대신, 동창리 시험장 폐기를 남북 합의로 내놓으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방식으로 종적 접근이 아닌 횡적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맞춰) 하나씩 완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미사일 시설을 먼저 내어주고, 종전선언을 얻으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도미노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구체적인 실익이 없어 보이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정치 노선을 핵 없는 한반도로 바꿀 명분은 미국과의 종전 선언"이라고 관측했다.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진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종전선언의 실마리는 남북 정상이 선언문에 넣지 않은 대미 협상 카드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0068호 (2018.01.04 ~ 2019.01.03)

저금리의 어려움이
노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수백만 고객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드리는 투자전문그룹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은
미래에셋 창업 이래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께 의지가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우량자산을 찾고 해외에 진출합니다

저금리를 넘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행과 다른 투자전문그룹의 방식입니다
좋은 수익과 안정성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 문건영 아리랑TV 앵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왼쪽부터).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역사적인 시작, 미국 반대세력 주시해야"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적 한 획을 그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미북 간 관계가 언제 나빠질지 모른다고 염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작년부터 오늘까지를 생각해보면 ICBM, 핵폭탄 등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어제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문대통령의 모습에 놀라웠다며" "역사적이고 기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굉장히 큰 도약을 했으며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가는 길의 궤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문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는 "뒤로 역행하는 건 쉽지만 한 발짝 앞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시작이 좋았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며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이 교착상태였는데 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지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는 정치 업적 달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 굉장히 만족했을 것"이라며 "추후에 상응 조치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북제재가 철회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에선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판단하는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더 네이션의 팀 셔록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워싱턴을 이해할 때 북한과 트럼프의 관계뿐 아니라 워싱턴 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반대세력이 굉장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토론 참석자들은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전망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100%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기는 중간선거 4~5일 전으로 예측했다. 우정엽 실장도 "북미대화는 100%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대화를 하는 것과 성취를 이뤄내는 건 다른 문제이며 언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 성취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